

요나 1:17 – 2:10

17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몇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요나를 삼킨 것이 큰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고기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고래가 아니라 아주 큰 물고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요나를 이야기 할 때 무심코 고래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목할 단어는 “마련하여 두셨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요나가 바다로 던져질 것을 아셨고, 요나를 구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신 것과 비유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대목인데,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마태 12:38-40, 마태 16:4, 누가 11:29-32)

간혹 요나서를 이야기 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사실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핵심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유되듯이, 요나가 죽음의 위기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요나를 용서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2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3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4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 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니다. 5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6 나는 땅 속 멧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서 2 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시) 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2 절에서 물속으로 빠져들 때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3 절 – 6 하는 절에서 물위에서부터 (3 절) 물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가는 (4 절) 그리고 밑바닥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5 절) 거의 익사하기 직전까지 가는 (6 절) 요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절에서 한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차이가 나는데, 처음의 “주님께서” 는 3 인칭인데 (he answered) 두번째로 나오는 “주님께서” 는 2 인칭입니다. (you answered) 고통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바뀌어 가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스올” 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6 절의 빗장은 스올로 들어가는 문의 빗장을 의미하는데, 요나가 거의 죽는 지경에 까지 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한가지 주목할 것은, 3 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진 사람이 뱃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이심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이 시의 2 절부터 6 절은, 다섯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락인데, 이중 핵심이 되는 구절이 4 절입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7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께 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8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9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7 절 - 9 절까지는 마침내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9 절 말미에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9 절 초반부, “그러나 나는 ~” 이라는 표현은, 시편을 읽다보면 아주 익숙하게 등장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부분인데, 요나의 시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13:5, 31:14, 59:16, 같이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7 절에서 요나는 극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Remember the Lord your God)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 신명기 8:18).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들에 많이 나오는 말이,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0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 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spoke to the fish).”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반발하였지만, 물고기는 아무런 저항없이 따릅니다. 불순종은 아마도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가 구원을 받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물으로 뱉어냅니다. 뱉어낸다는 말은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편안한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요나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